

양심적인 정보제공 없으면

닭질병 어려워...



원인규명

김기석

가축위생연구소 수의학박사

최 근 우리사회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몸부림으로 매우 어수선하며 혼란된 양상을 띠고 있다. 정치인, 기업인, 교육자, 학생, 일반인 할것 없이 국민 모두가 흔들리고 어느 정도는 구심점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부정, 부패, 부조리의 범주에 속하나 이는 달리 표현해서 그간 긴 세월 동안 우리사회 서로간에 쌓인 불신(不信)이 초래한 결과가 아닐는지..?

필자가 지난 십수년동안 동료팀과 더불어 국내 닭 가검물의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해 오는 동안 이러한 불신(不信)이 우리 양계인들 가슴에도 깊이 내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양계농장에서 질병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 경우 사양가, 사료회사, 부화장, 종계장, 제약회사들이 서로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 발생요인이 없었는지를 찾기위한 노력보다는 우선 다른 관련분야에 그 문제점을

떠넘기려 애쓰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그 와중에서 우리 연구소에 의뢰된 닭 가검물의 병성감정은 그 농장에서 현재 문제시 되고있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신속한 방제 대책 강구가 목적이 아니라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정이 목적이 되어 결과적으로 질병진단과 더불어 송사(訟事)문제를 취급하는 법원의 역할도 맡게 될 경우에 처하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된 질병의 종류나 발생된 닭의 일령 등에 따라 문제 질병 발생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계에 있어서 생산물의 일종인 닭은 기계나 기구류 등의 무생물이 아닌 살아있는 고등 생물체이기 때문에 닭 본체를 제외한 모든 주위 여건과 환경에 대한 반응이 다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많은 경우 아무리 노련한 병성감정의 전문가라 할지라

도 사양가를 위시한 관련분야로부터 올바르고 양심적인 관련정보의 제공이 없이는 판정된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연유하는지를 정확히 가려 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는 마치 바닷물에 작은 돌맹이를 던져놓고 찾아내라는 것과도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최근에 이를 수록 각종 질병이 과거의 단순감염으로부터 두가지 이상 때로는 4~5종의 질병이 복합감염하여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감염 질병들을 찾아내는 것조차도 매우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람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들과는 다르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의 경우 환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정보제공은 신체 이상시 대부분 공통으로 나타내는 의기소침, 사료나 음수의 섭취감소, 설사 등 일반적인 증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축주나 사양가 등 사람으로부터 진단에 도움이 되는 역학적 정보를 얻어낼 수밖에 없게된다.

지난 '70~'8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구소에 닭 가검물의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보면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축주나 사양가가 아닌 관련분야의 서비스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의뢰하는 병계에 대해 가진 역학지식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병계 자체를 상대로 하여 진단을 내려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사람의 경우와 비유해 보면 몸이 아픈 환자를 대신해서 가족이나 친지 등 제삼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환자의 병증을 알리고 진단을 얻고자 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한 마리의 병아리가 종계로부터 부화를 거쳐

우리 양계산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이 상호 불신이 아닌 공동의 협력으로 이끌어 나갈때...

일반 사양가에 의해 완성될 때까지는 종계장, 부화장, 사양가, 사료회사, 제약회사의 상호 협력과 보완하에 하나의 종합예술 작품으로써, 육계의 경우에는 시장출하 그리고 산란계에서는 산란으로 완성된다고 하겠다.

이는 마치 유행하는 가요가 있기까지는 작사, 작곡, 가수, 청중의 순서를 거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음악적 소질이 뛰어난 가수라 할지라도 그 가요의 내용이 충실치 못하거나 곡의 리듬이 청중의 가슴을 파고들지 못하거나 또는 청중의 수준이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경우 그 노래는 대중가요라기 보다는 일부 청중에 국한되거나 단명하게 된다.

우리 양계산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이 상호 불신(不信)이 아닌 공동의 협력으로 이끌어 나갈때 우리 한국 양계의 앞날에 지금보다 밝은 미래가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양계**